

통닭구이가 만든 공산주의자

1985. 9

우리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부림사건의 구속자 가족들은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께 억울한 우리의 마음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억울한 사실을 호소하는 것이며 따라서 공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냉정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부림사건」이란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다른 이, 장씨부부 어음사기 사건이나 의령경찰관 총기 사건이나 미문화원방화사건등과 같이 제목 자체에서 사건내용을 알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당사자들조차도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수 없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성격의 조작사건 입니다. 물론 조작이 가능했던 것은 비밀스럽게 행해진 차마 인간으로서는 저지를 수 없는 무시무시한 고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81년 6월부터 이유도 모르고 강제 연행된 16명(추가 3명)의 피고인들(이상록, 고희석, 송세경, 설동일, 송병곤, 노재열, 김희욱, 이상경, 김재규, 최준영, 주정민, 이진걸, 장상훈, 전중근, 박옥영, 윤연희, 추가:이호철, 설경혜, 정귀순)은 현재 징역 7년, 5년, 4년, 3년 6월, 2년 6월, 2년, 집행유예 3년, 2년의 1심선고를 받은 후 항소재판중에 있으며(추가는 1심 재판중), 강제 연행으로부터 현재 재판까지 1년간의 사건처리 과정을 겪어 오면서 부당하고 무리하게 조작한 계획된 음모였음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공소장에 명시된 피고인들의 활동내용을 보면

1. 대부분 가난한 환경속에서 살면서 보다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진 것에 대해 애초부터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불온한 생각을 가져왔다고 규정해 놓았고
2. 올바른 사회현실의 파악을 위해 개인 혹은 단체로 공부해온 것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 활동으로 매도하고
3. 자연스런 친구들과의 만남, 캠핑, 계모임, 친목회, 결혼축하회, 망년회, 이삿집 방문까지도 사회의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로 인정, 집회시위 위반이라는 것이며
4. 친구와 단들이 만나 나누는 사담의 내용이 바로 반정부적, 반국가적 사상의 표현으로 몰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 했으며
5. 부산지방의 낙후된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만들었던 완전 개방적인 모임인 양서조합, 금요모임, 야학등을 좌경의 식화 운동의 모체라 했고
6. 대학교앞, 또 시중의 인가난 서점에서 구입한 책이나 학교 도서관에서 대출한 책들을 불온서적으로 취급하고 탐독 및 소지 자체가 범죄가 된다는 식의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들이 한 일이란, 조국의 현재와 미래를 염려하는 지식인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들에 대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써 관심을 가져온 것에 불과하고 물리적 힘에 의한 정권교체의 악순환과 장여인 사건에서 증명됐듯이 특권층의 부정부패의 국가발전의 암적요소들을 건설적으로 비판한 진정한 국가발전을 위해 장려되고 반영되어야 할 일들을 해온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국민으로서의 사회에 대한 관심과 건설적인 비판을 부정하고 불온시하는 당국이야말로 반국가적 행위라고 생각할수 있는 것입니다.

16명이 약속이나 한듯이 각자의 모든 행동의 목적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 실현이라고 자술된 몇백장의 조서는 온갖 고문으로 인한 우리의 남편과 자식들의 피와 땀, 그 자체임을 재판과정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모진 매와 고문에 버티다 쓰러진 그들이 조서의 낱말 하나하나를 피와 상처로 팔아 넘긴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에서는 물론 1심의 재판에서조차 이들의 왜곡된 진실이 반영되지 않은 현실속에서 민주주의자가 공산주의자로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밝힘으로써 통닭구이가 만든 공산주의자임을 증명하려 합니다.

1. 연행에서부터 경찰은 몇몇하지 못했습니다. 합법적 절차인 구속 영장 제시도 없이 대부분 자신의 집, 출근길 근무처, 친구집 등에서 개 끌듯이 강제 연행되었는데, 3-4명의 건장한 사복형사들로부터 이유도 모르고 보자기에 눈을 가린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끌려 갔었습니다. 만인이 인정할 정도의 징역 7년이란 중죄를 지은 자라면 정정당당히 법적 절차에 따라 연행할 일일텐데 왜 이런 비밀스럽고 불법적인 연행, 감금이 필요했었는지요?

법적으로도 보상받지 못하는 처참한 고문의 나날이었던 불법감금의 기간은 장장 2달에서 1달이나 됩니다.

2. 피고인들이 1심 최후진술과 항소이유에서 밝힌, 허위 자술서를 쓰게 되기까지의 수사상의 고문과 강요당한 시나리오 배우 역할의 참상은 이러합니다.

강제 연행되어 끌려온 곳은 밀폐된 조그만 방이었는데(정보 2과 대공분실)그방에 집어 넣자마자 3, 4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들어와 그곳은 송도 혈청소라고도 하며 국회의원, 법관, 교수 어느 누구라도 와서 떠는 곳이고 죽어나가도 모르며 말을 안들으면 바닷물에 던져버리겠다고 하면서 무슨 사상을 가진 ~주의자냐는 질문을 던진뒤 민주주의자라 하니 무조건 구타하기 시작했답니다.

1~2일간 밤낮도 없이 곡괭이 자루, 몽둥이로 때리며 구둑발로 온몸을 짓이겼고 벽에 기대어 놓고 닥치는 대로 패면서 공산주의자임을 자백하도록 강요했으나 몇번이나 실신되도록 민주주의자라고 버텼습니다.

그후 민주학생연맹, 민주노동연맹사건의 구속자들이 쓴 자술서와 하나, 둘 불어나는, 친구들의 매에 못이겨 작성된 자술서가 각방마다 날아들어오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만들어가는 작업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과격한 용어들로 요구했습니다.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는 권리가 그들에게 있다고 큰소리치는 담당 수사관들의 시작도 끝도 없이 더해가는 갖가지의 고문은 정말 생명도 아랑곳하지 않을 사람들임을 확신시켜 주었고, 술에 만취되어 들어와 기분풀이로 구타하는 굴욕적인 수사관들의 소행앞에 자존심도 인격도 이미 없어져 버렸고 사회주의자가되든 공산주의자가되든, 생명만이라도 구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고문중에서도 제일 끔찍했던 고문이 "통닭구이"라는 것이었는데 이는 통닭이 아닌 사람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후

발바닥 발가락을 세운후 손등, 손바닥을 수없이 난타한후 마치 통닭이 전기 철봉에 매달리듯, 끈으로 손과 발을 묶은후 손과 종아리 사이로 굵고 긴 몽둥이를 가로질러 놓고는 공중에 매달아 놓고 손, 발, 머리등 닦치는대로 때리고 문지르는 것인데 이 통닭구이로 발톱이 다 빠져 달아났고 온몸은 가지처럼 보랏빛으로 변해 헤어져 있었고 제대로 걸지도 못해 무릎으로 엉금엉금 기어야 했답니다.

용납되지 않는 조서를 쓰지 않기 위해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손을 다치게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날아오는 몽둥이에 일부러 손을 갖다대어 팔을 못쓰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욕설과 몽둥이, 비명소리로 수라장이 된 차단된 공포의 집에서 하루, 이틀이 아닌 1달, 2달이란 긴 시간동안 갈수록 더해가는 갖가지 고문을 당해온 우리의 남편과 자식들은 매에 못이겨 썩어진 친구들의 자술서를 보며 원망과 이해로서 자포자기 해버렸고 최소한 구차하기까지한 생명을 존속시키겠다는 인간본능적인 생각으로 그들의 요구에 차차 응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수사요원이 알고 있는 공산주의 사상과 교조를 불러주는 대로 적었고 친구들의 자술서를 보고 적거나 나중에는 자신이 읽었던 책들과 지식을 총동원해 그들이 원하는 각본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빠진 발톱, 기형으로 된 발가락, 온몸의 상처, 척추디스크, 불구된 팔등은 현재까지 남아있어 위의 고문 사실을 증명하고 있으며 검사는 물론 안전기획부 요원까지 확인하고 갔습니다.

정도를 넘어선 악랄한 고문은 생명과 생존을 위협했고 자포자기와 정신적 공포감 속에서의 자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자가 되기엔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통닭구이가 만든 공산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모질고 악독한 고문을 행해 공산주의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수사관일수록 공포자가 돼 승급하는 수사현실을 우리 가족들은 목격하고 있습니다. 송치되어 검사 앞에서의 자술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인정했었는데, 그럴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경찰에서처럼 고문이 행해진것은 아니었지만 1,2달간에 터득된 수사과정상의 자포자기와 공포감 이 계속 있었고 경찰조사중 현 담당검사가 분실에 찾아와 경찰과 같은 위치에서 의논하는 것을 보고 이미 송치되기 이전부터 검사의 지휘하에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지했었고, 송치 전후하여 담당 수사관들로부터 공공연하게 검사앞에서의 그대로의 인정을 강요당하면서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때는 다시 전과같은 식으로 재조사할거라고 하는말에 충분히 그럴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되어, 검사가 원하는대로 인정해 주었다고 피고인들은 2심 재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 피고인들과 우리 가족들은 고문으로 인해 만들어진 이 조작사건이 재판을 통해 소상히 밝혀지리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1심재판의 결과는 징역 7년, 5년, 4년... 이라는 중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중한 죄를 지은 자들의 재판은 방청권을 발부하여 은밀하게 진행되었으며 급기야는 제일 중요한 결심공판은 밤 11시까지 속개하여 날치기식으로 끝내버려 역사상 기록에 남을만한 영터리 재판을 만들었고 여기에 굴하지 않고 굳굳하게 밝혀온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반증하는 진술들은 보기 좋게 거부당했으며 발톱이 빠진것을 직접 목격한 검사까지도 피고인들이 고문을 당했으리가 없다고 하여 재판이 형식적인 절차임을 입증했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재차 확인된 것은 부림사건이란 계획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실이 밝혀진다고 해도 결과까지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정부 당국이 원해서 만들어진 일이었고 경찰, 검찰, 사법부까지도 그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4. 우리의 남편과 자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도소 생활은 어떠한지요? 이곳 또한 교도소 나름대로의 자율권이 없는 곳으로 "위의지시"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그 "위의지시"에 따르는 곳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기에 독방에서 운동도 제한되었고, 현생활의 고문이라 할 수 있는 책들의 제한과 서신왕래의 제한, 접견의 까다로운 절차 및 대화내용 기록 및 녹음... 등, 수감자로서 누릴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까지 억제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피고인 가족들의 생활 또한 창살없는 감옥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억울한 사정들을 알리며 돌아다닐까봐 2~3명의 담당형사를 시켜 미행케하며 24시간의 가족생활을 감시할 뿐더러 심지어는 심한 미행과 감시로 인한 다툼에서 온갖 욕설을 퍼붓는가하면 가족의 뺨과 몸을 구타하기까지 했습니다. 가족이 고소를 하게 되어서 뒤늦게 타협하자든, 잘못되었다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소후에도 말과 다르게 아직도 계속 미행과 감시를 자행하고 있으며 그 방법 또한 졸렬하고 융통성이 없어 가족들의 감정을 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정부 당국에 대해 의문나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1. 왜 이렇게 무리한 방법으로까지 우리의 가족들을 구속해야 하는 것인지, 그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요? 이들이 정말 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자들인지요? 의령사건의 우순경과 어음사기사건의 장여인보다 더 사회를 혼란시켰는가요? 오히려 그러한 끔직한 일들이 있을까봐 현실의 문제를 파악하고 건설적으로 비판한 것일진대 이들의 생각을 보다 일찌기 반영시켰다면 위의 사건들은 예방 되었을 것입니다.
2. 대공요원들이라 하면 우순경과 같은 일반 경찰들보다 여러모로 더 우수한 자들일텐데 진정한 공산주의자를 분별하지는 못하고 도리어 심한 고문을 행하여 공산주의자를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방관하고 조장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탈을 쓰고 차마할 수 없는 고문의 실천자들이 바로 대공요원들이니까?
3. 사법부, 교도소등 각 분야의 자율권은 왜 소멸 됐나요? 어디를 가나 "위의지시"가 가로 막혀 있어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고문을 당해 병신이 되어 있는 것도 억울한데 그이후의 생활조차 부자유와 감시 속에서 살게 하며, 이렇게 여러곳에서 당하고 있는 일들이 억울하여 사실대로 밝히는 메모소문을 썼다하여 가족들까지 감시받고 더욱이 구타까지 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24시간 가족의 행적 및 소재 보고서를 작성케하여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과라는 곳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감시하는 곳입니까?

우리가 당한 일들을 올바르게 판단하시는 여러 이웃들과 함께 바라고 싶은것은 우리의 남편과 자식들이 하루빨리 통닭구이로 만든 공산주의자의 누명을 벗고 석방되기를 바라며 인권과 생명까지 유린당하는 엄청난 고문을 앞으로 폐지할것과 구속자 및 그의 가족들의 보다 자유롭고 침해받지 않는 생활이 보장될 것과, 무엇보다 진행중인 2심 재판이 사법부로서의 공정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빌어마지 않는 것입니다. 의를향해 고난당하고 있는 모든 형제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1982 6